



평창 목도리 두른 외교장관들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회의(밴쿠버회의)에 참석한 20개국 외교장관들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마친 뒤 평창동계올림픽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촬영을 했다. 오른쪽 세번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른쪽 네번째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앞줄 왼쪽에서 5번째가 렉스 틸러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다. <캐나다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한미일, 평화적 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압박·대화 ‘대북 투트랙’ 논의 올림픽 지지 등 공동의장성명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스 미 국무부 장관.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회의’(밴쿠버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하고 밴쿠버회의 연장선상에서 북핵 관련 3국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밴쿠버회의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과 평창올림픽 및 남북대화 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

한 연대와 결의를 보여주고, 이를 반영한 균형잡힌 공동의장 요약문을 채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세 장관은 이번 회의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최됐다는 점에 동의하며 비슷한 계기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이런 차원에서 각자 외교적 노력 현황과 평가를 공유했다.

강 장관은 대북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틸러스 장관과 고노 외무상도 이런 방침에 지지를 표시하며 3국 간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최우선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세 장관은 최근 남북대화 재개로 생긴 한반도 정세 변화의 동력을 비핵화 진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제재·압박과 대화·재

개라는 두 트랙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세 장관은 지난해 8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강 장관은 15~16일 이틀에 걸쳐 틸러스 장관과 수시로 별도 협의를 하고 이번 회의의 전반과 대외 메시지를 조율했다. 특히 평창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평창올림픽의 미·고위 대표단장으로 방문할 예정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밴쿠버회의 초대 못 받은 왕이 中 외교 “한반도 정세 관련국들 진정성 따져보아야”

왕이(사진) 중국 외교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각 관련국의 진정성을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중인 왕 부장은 17일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봉황위성TV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오기 어려운 완하 국면에 있으며 관련국이 노력했고 남북한이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결과”라면서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면 이런 시기마다 방해 세력이 출현하고 심지어 고의로 차를 후진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은 각 관련국의 진정성을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눈을 크게 뜨고 누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추동자인지, 혹은 누가 한반도 정세를 다시 긴장국면으로 되돌리려는 파괴자인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컵에 물을 담을 때 어떤 사람은 가득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정세도 이와 같아서 긴장보다 완화가 낫고 대결보다 대화가

낫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지만 같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고 같은 한 입 한 입 먹어야 한다”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우회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며 이렇게 길을 가다보면 최종적으로 비핵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무장관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회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한국전 참전 동맹국 중심의 21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와 외교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초청을 받지 못했다.

루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가 합법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아베 평창 갈 수 있도록 日 여당 국회 일정 조정

일본 여당이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일정 조정에 나섰다 NHK가 17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간부회의를 하고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국회일정 상의 사정으로 아베 총리가 개회식 참석을 보류하는 일이 없도록 야당 측과 조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도 이날 오시마 다다모리 일본 중의원의 의장이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 관전을 위해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100년 만에 공개된 고희 스케치

빈센트 반 고희의 진귀한 스케치 작품이 100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17일 영국 가디언과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출신의 ‘불멸의 화가’ 반 고희와 17세기 유명 화가 호페르트 플링크의 ‘잊혀 있던 작품’ 4점이 100년 만에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들 작품 중에는 개인 소장품으로 여태껏 공개되지 않았던 반 고희의 단색 스케치 그림 ‘몽마르트르 언덕의 채색장’도 포함됐다. 이 그림은 반 고희가 벨기에 앤트워프와 프랑스 파리에서 살던 1886년 때 그렸던 작품이다. 당시 반 고희는 프랑스의 저명한 화가 페르낭 코르몽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몽마르트르 언덕의 채색장’은 개인이 소장한 탓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2013년 진본인지 가리기 위해 반 고희 박물관에서 확인 작업을 거쳤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희 박물관의 선임 연구원 테이오 메이덴도르프는 “우리는 2013년 진본임을 입증했지만, 소장가가 작품의 공개

를 원하지 않아 몇 년간 랩으로 쓴 채 보관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러한 발견은 항상 위대하다”며 “이러한 일은 정말로 예외적으로 종종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 작품은 반 고희 남동생 테오의 부인이 소유했다가 1917년 개인 소장가에게 팔렸다.

반 고희의 또 다른 스케치 작품 ‘몽마르트르 언덕’은 16일 네덜란드 중부 ‘싱어 라렌’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공개됐다. 이 작품 역시 반 고희 박물관이 진본임을 입증했다.

싱어 라렌 박물관은 성명을 통해 “두 스케치 작품에 사용된 문구류 종류는 같다”며 “그(반 고희)가 1886년 겨울과 봄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여전히 찾고 있음을 멋지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렘브란트의 제자였던 플링크(1615~1660)의 마공예 작품 2점은 16일 암스테르담 박물관에서 1895년 개사라진 뒤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다.



반 고희의 스케치 작품 ‘몽마르트르 언덕의 채색장’. <연합뉴스>

트럼프 연임 빨간불 첫해 지지율 39% 美 역대 최저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해 평균 지지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A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클럽에 따르면 작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39%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미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1년 차 평균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중진 기록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49%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주간 지지율은 38%로 평균치와 거의 비슷하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주간 지지율조차 45%에 불과했다.

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분열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으며, 그의 직무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서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임기 초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7%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곧바로 반등시켜 두 번째 대선도 승리했고,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역대 최저인 22%를 기록하는 등 임기 첫해의 상당 기간을 40% 이하의 지지율에서 맴돌다 역시 연임을 달성했다.

AP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인 <연합뉴스>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 ▶ 삼성전자 - 120만평
- ▶ LG전자 - 110만평
- ▶ 송탄역/진위역 5분
- ▶ 미군기지
- ▶ 평택 항
- ▶ 고덕신도시 520만평

- ▣ 총 7필 지 분양
-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완료

1필지(약 200평)
★ 평당 200만 → 할인 13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1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 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 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3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4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경매교육

- 1) 이론 실전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 2) 실전 투자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 3) 경매 평생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 1 서구 화정동 대주아파트(48평) 감정 2억 → 최저 1억4천
- 2 광산구 수완동 우미린 (33평) 감정 3억 → 최저 2억1천
- 3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 5천3백 → 최저 2천9백

[사무직 (여)경리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광산구 우산동 (원불빌딩)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5,600만
-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휴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1억4천4백
- 3) 화순 도곡 천암리 (무인빌) 감정가 37억4천 → 최저가 20억
- 4)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3천
-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 6) 동구 산수동 (상가주택)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7) 광산구 비아동 (주유소) 토지 546평 건물 178평 감정가 18억8천 → 최저가 18억8천
-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8천
- 9)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가주택) 건물 427평 토지 189평 감정가 19억8천 → 최저가 9억 7천
- 10)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창고) 감정가 8천 7백 → 최저가 3천 9백
- 11) 전북 군산시 평화동 (3층 상가) 건물 336평 토지 189평 감정가 12억 → 4억 1천

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

- 1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1억9천5백 → 최저 1억3천6백
- 2 서구 용암동 금호타운 (24평)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 3 서구 치평동 금호쌍용 아파트 (58평) 감정 3억9천 → 최저3억 9천
- 4 서구 유촌동 벚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천7백 → 최저 1억 4천
- 5 북구 용암산교아루레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 6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 7 서구 화정동 (주택) 감정 2억4천 → 최저 1억6천5백
- 8 서구 마루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1억3천
- 9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7억6천
- 10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지 465평) 감정 2천7백 → 최저 2천
- 11 전남 목포시 용당동 (속박시설) 감정 8억3천 → 최저 4억6천
- 12 전남 영암군 삼호읍 (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 6억6천

010-6670-9800 010-7384-7800